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 제 2 단원: 하나님을 바라보라 (1)

1.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1.1. 어떤 일에 앞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심

1.1.1. 대홍수 전, ()에게 나타나셨을 때(창 6:13)

1.1.2. 소돔성의 멸망 전, ()에게 나타나셨을 때(창 18:17)

1.1.3. 예수님의 탄생 전, ()에게 나타나셨을 때(눅 1:13)

1.1.4. 다메섹 도상에서 ()에게 나타나셨을 때(행 26:17-18)?

1.2.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1.2.1. 구원의 삶이란 내가 아니라, ()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A.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창 3:6)

B.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죄의 유혹을 뿌리침(창 39:9)

1.2.2. 위 성경인물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게 해 달라고 외치지 않음

1.2.3.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두 가지 방식

A.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

B.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

2.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의 자세

2.1.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우리를 ()하심

2.2. 초대를 받았을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 자기 중심의 신앙

2.2.1. 애당초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2.2.2. 어떻게 하나님 ()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는가(고전 2:4)?

2.3. 가나안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

2.3.1. 열 명의 정탐꾼은 () 중심의 관점으로 보고(민 13:31)

2.3.2. 여호수아와 갈렙은 () 중심의 관점으로 보고(민 14:8)

2.3.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심(빌 2:13)

2.4. 우리가 멋대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방치해 두심

2.4.1.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을 것!

2.4.2.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경험할 수는 없음

A.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다면? → 많은 인명피해!

B.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니 →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음(애굽 군대의 파멸과 풍성한 재물)

3. 하나님의 초대를 확인하는 방법

3.1.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

3.1.1.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

3.1.2. 하나님이 현재 이곳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함

3.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하라!

3.2.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일(요 6:44)

3.2.1.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어오심

3.2.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을 찾고 있거나

3.2.2.()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일이 있는 곳!

3.3.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일을 분별할 때

3.3.1.(),(),(),() 모두가 일치함 → 마음의()

3.3.2.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아니라, 한 걸음씩만 알려주심

3.3.3.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과의()

*조지 물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 그는 시편 81:10 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브리스톨에서 사역할 때, 그는 성경 보급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관을 창설하고, 또한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아뢰고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지 물러는 4 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며, 모두 10,000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고, 이 기간 그에게 기부된 돈은 1 억 파운드, 오늘날로 1,700 억원이 넘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있게 임했던 때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었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